

##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Self-Esteem

Lee, Sungsim<sup>1)</sup>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 ABSTRACT >

---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self-esteem using a latent growth model,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YCPS 2018) of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ncluded 2,160 participants (1,158 males and 1,002 females) who responded faithfully to relevant variable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n 2018.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self-esteem gradually decreases with age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the unconditional model of adolescent self-esteem, indicating tha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individualized. Third, parenting style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coercion,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were analyzed as predictors, finding that; except for coercion,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were all predictors of initial self-esteem, and rejection,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ate of chang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xamine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 self-esteem, an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 Self-esteem, Parental Attitude, adolescent, Latent Growth Model, KYCPS 2018

---

---

1) Author: Lee, Sungsim, Research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34 Da-gil, B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4 / E-mail: simi7@nate.com

##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이성심<sup>1)</sup> (성신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 < 요약 >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개인차가 있는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YCPS 2018)’ 데이터 중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총 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련 변수에 성실하게 응답한 2,160명(남학생 1,158명, 여학생 1,00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청소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강요를 제외한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밀관성 모두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밀관성은 변화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

---

1) 저자: 이성심, 연구교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 E-mail: simi7@nate.com  
논문투고일자: 2023. 10. 12 / 심사일자: 2023. 10. 13 / 게재확정일자: 2023. 11. 13

## I. 서론

청소년기는 생애 단계에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와 사회의 규칙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자아 인식과 자기 평가에 민감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자기인식과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문제해결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다(Hong, 2020). 청소년기는 학업과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Park & Kim, 2023).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Hwang & Gao, 2023).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 삶의 만족, 진로 발달 등과 같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에 영향을 주어 발달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Lee & Lea, 2020).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COVID-19 팬데믹은 이전과 달리 비대면 교육 및 교우관계, 부모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렇게 달라진 상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Park, 2023).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izer et al., 2019).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는 최초의 인적 환경이며,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자녀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21). 자아존중감은 오랜 시간 함께한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수용적인 태도와 같은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Park, 2021).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An et al., 2016; Cha et al., 2019; Kim & Cho, 2017).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Kwak,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학교적응 수준도 향상시키지만(Cha et al., 2019; Kim et al., 2021),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와의 싸움, 규칙위반, 학교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Kim & Lee, 2018; Park, 2021). 부모양육태도는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보다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지각하는가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An et al., 2016). 이는 부모는 스스로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

로 인식하여도 자녀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행동양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Kim, 2021). 청소년은 부모의 행동양식을 학습하여 모방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며 성장하고 발달한다(Jeung, 2016).

Robertson & Simons(1989)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발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주위의 영향으로 성장발달 상의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Ju et al., 2019). 이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연구를 메타분석 한 Pinquart & Gerke(2019)는 둘 사이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매개요인으로 살펴보거나(Cha et al., 2019; Jeon & Kim, 2016; Kim, 2018; Park, 2021; Rhee & Lee, 2017; Yoo & Kim, 2023) 자아존중감에 대한 횡단적 연구로 설계되었기에(Bae & Nam, 2023; Kim et al., 2021; Kim et al., 2023; Lee & Lea, 2020; Yim & Kim, 2020),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이하 KYCPS 2018)’의 데이터 중 2018에 중학교 1학년이며,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총 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정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다(Rosenberg, 1965). 청소년의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또래 집단을 포함한 가까운 환경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평가와 관련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Harter, 1993).

국내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인식,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Hwang & Gao, 2023). Yoo & Kim(2023)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자기 평가를 내리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게 보고, 자기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자아개념으로 정의하거나(Lee & Lea, 2020),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 및 긍정적, 부정적인 판단 및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23).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와 타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개념을 형성하며, 이것을 활용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적이고 판단적인 평가체계라고 정의한다(Mun & Choi, 2015).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실수를 해도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Hwang & Gao, 2023).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청소년 초기부터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세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이후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Yoo, 2017).

## 2. 부모양육태도

Jannah et al.(2022)는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부모의 경험, 전문성, 자질 및 책임을 포함하는 양육방식으로 부모양육을 정의한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며 나타나는 부모의 일반적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거나(Park, 2021),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중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양식 등이 자녀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 정의한다(Yoo, 2021).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이다(Kim, 2022).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따뜻함), 부정적(엄격함)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거나(Queiroz et al., 2020), 3차원 모형(애정-거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으로 보는 관점과 6요인(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따스함, 강요, 혼란, 거부)로 보는 관점이 있다(Kim & Lee, 2017; Skinner et al., 2005; Yoo & Kim, 2023). 6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전생애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Kim, 2022; Skinner et al., 2005).

### 3.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3개국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따뜻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ez et al., 2020). 스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따뜻한 부모양육태도를 보이는 가정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Queiroz et al., 2020).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nquart & Gerke, 2019).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 et al., 2021).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et al., 2019; Kim, 2018; Rhee & Lee, 2017; Yoo & Kim, 2023).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et al., 2021; Lee et al., 2021).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YCPS 2018’ 자료 중 2018년~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YCPS 2018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가 시작되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1).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중학교 1학년이며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4년간 변수로 사용된 문항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2,160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남학생은 1,158(53.6%)명, 여학생은 1,002(46.4%)명이었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이 연구는 KYCPS 2018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1개의 종속변수(자아존중감)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따스함, 겁,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인 6개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긍정 문항 5개, 부정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부모양육태도는 Kim & Lee(2017)가 한국판 청소년동 동 기모형 양육태도척도(PSCQ\_A)를 타당화한 척도로 따스함, 겁,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각각의 하위변인은 4문항씩 총 24문항이며, 응답방식은 4점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인	설문문항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따스함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부모양육태도 거부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자율성 지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강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하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구조 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비밀 관성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 역문항

출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아동·청소년용(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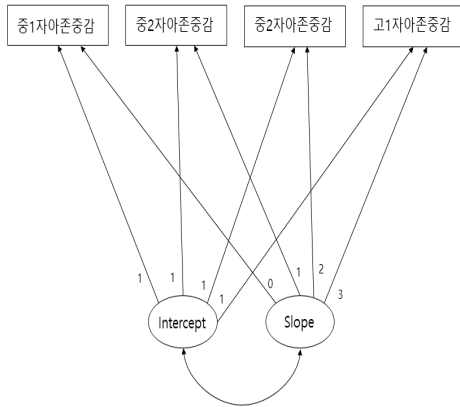
<표 2> 측정변인 및 신뢰도

변인	문항	척도	신뢰도
자아존중감	1차년(2018)		.868
	2차년(2019)	1:전혀 그렇지 않다	.847
	3차년(2020)	~4: 매우 그렇다	.837
	4차년(2021)		.829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913
	거부		.793
	자율성 지지	1:전혀 그렇지 않다	.884
	강요	~4: 매우 그렇다	.775
	구조제공		.793
	비밀관성		.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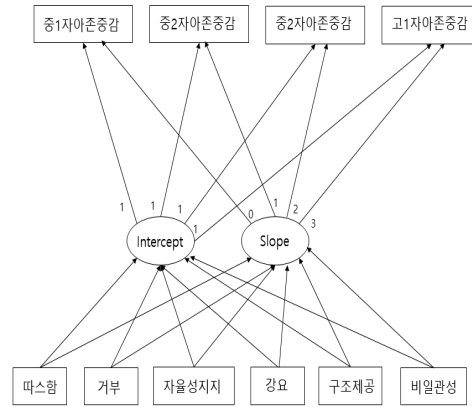
###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25.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추정하고,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화의 크기를 분석하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Heo, 2013). 먼저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성장모형을 검증한 후 ([그림 1] 참고), 예측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1] 자아존중감의 분석 무조건모형



[그림 2] 자아존중감의 분석 조건모형

## IV. 연구결과

###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소년 중1~고1까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거부, 자율성,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정규분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중1부터 고1까지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중1~고1까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거부, 자율성,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중 부정적 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모두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있다.

<표 3>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중1자아존중감	1									
②중2자아존중감	.463**	1								
③중3자아존중감	.440**	.501**	1							
④고1자아존중감	.319**	.407**	.516**	1						
⑤따스함	.449**	.289**	.253**	.180**	1					
⑥거부	-.387**	-.237**	-.213**	-.140**	-.465**	1				
⑦자율성	.449**	.267**	.239**	.126**	.732**	-.460**	1			
⑧강요	-.292**	-.187**	-.138**	-.089**	-.319**	.486**	-.401**	1		
⑨구조제공	.350**	.191**	.150**	.087**	.528**	-.263**	.526**	-.228**	1	
⑩비일관성	-.380**	-.239**	-.202**	-.147**	-.410**	.481**	-.452**	.573**	-.324**	1
M	3	2.94	2.92	2.89	3.38	1.76	3.36	2.17	3.06	2.04
SD	.51	.45	.45	.43	.57	.63	.57	.66	.54	.64
왜도	-.23	.07	-.15	.05	-.53	.83	-.53	.21	-.28	.25
첨도	-.21	.09	.48	.42	-.24	.84	-.25	-.22	.74	-.13

\*\* p<.01

## 2.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3]과 같이 변화율(slope)은 0, 1, 2로 하고, 초기치(intercept)와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1로 하는 선형변화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990, CFI=.992, RMSEA=.039로 적합도 기준에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5>에 나타난 초기치의 평균은 2.987(p<.001)이었으며, 분산은 .010(p<.001)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났다. 변화율은 평균 -.033(p<.00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화율은 분산은 .004(p<.001)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유의한 개인차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19(p<.001)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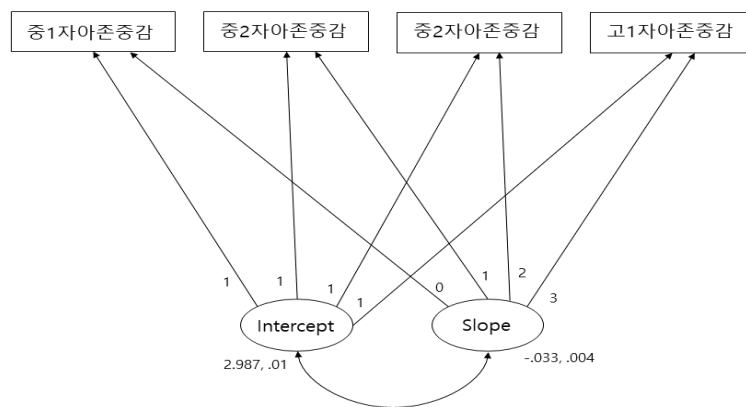
<표 4>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무조건모형	21.399	5	.001	.990	.992	.039

<표 5> 무조건모형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초기치	2.987***	.010***
변화율	-.033***	.004***
공분산		-.019***

\*\*\*  $p < .001$



[그림 3] 자아존중감의 무조건모형

### 3.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을 설정하였다. 무조건모형에 예측변인들을 투입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TLI=.975$ ,  $CFI=.990$ ,  $RMSEA=.045$ 로 적합도 기준에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7>과 [그림 4], [그림 5]를 보면, 부모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beta=.217$ ,  $p<.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따스한 양육태도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beta=-.19$ ,  $p<.001$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beta=.163$ ,  $p<.001$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부모의 거부하는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낮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beta$

=.194,  $p < .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beta = -.293$ ,  $p < .001$ )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beta = .119$ ,  $p < .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beta = -.204$ ,  $p < .001$ )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구조제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양육태도의 비밀관성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beta = -.18$ ,  $p < .001$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beta = .106$ ,  $p < .05$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비밀관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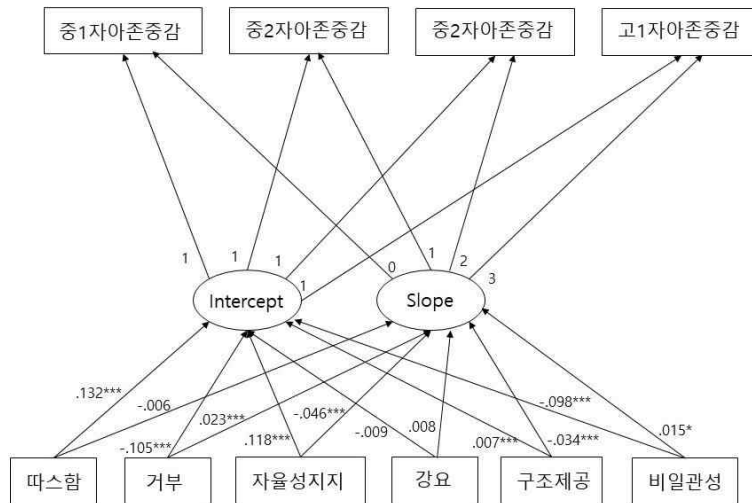
<표 6> 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조건모형	95.933	18	.000	.975	.990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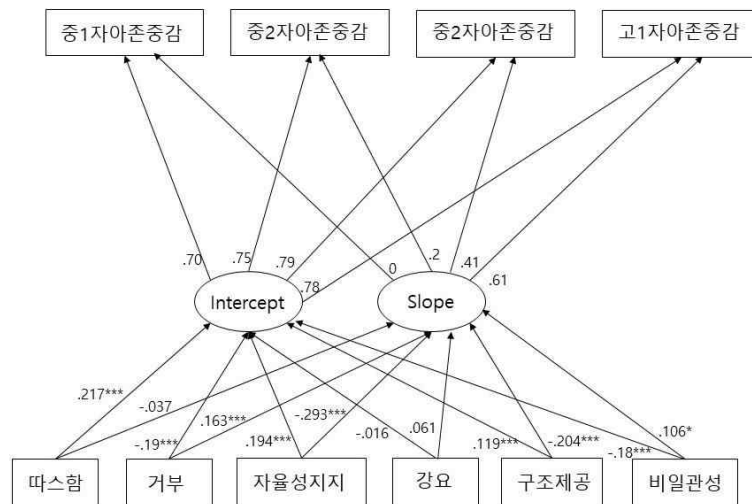
<표 7> 조건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hi^2$
따스함→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32	.217	.022	5.932***
따스함→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06	-.037	.009	-.627
거부→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05	-.19	.017	-6.379***
거부→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23	.163	.007	3.375***
자율성 지지→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18	.194	.023	5.225***
자율성 지지→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46	-.293	.009	-4.871***
강요→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09	-.016	.016	-.532
강요→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08	.061	.007	1.237
구조제공→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77	.119	.018	4.157***
구조제공→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34	-.204	.008	-4.393***
비밀관성→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98	-.18	.017	-5.803***
비밀관성→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15	.106	.007	2.111

\*\*\*  $p < .001$



[그림 4] 자아존중감의 조건모형(비표준화 계수)



[그림 5] 자아존중감의 조건모형(표준화 계수)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와 이 변화에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2018년부터 2021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또한, 이 변화에서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2014년 청소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본 Hwang & Gao(2023)의 연구와 반대 결과이며, 중학교 시기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Lim & Lee(2016)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2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은 인지적 발달 과정에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형식적 조작기로 들어서는 초기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 있다(Lee & Lea, 2020). 또한,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관성이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예측변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3년~2005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연구한 Chung(2007)의 연구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Lim & Lee(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 속도가 느려 연령이 증가하여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수준이 낮지만,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수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강요를 제외한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 모두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은 변화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부모의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초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형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Lee & Lea, 2020; Park, 2021),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Lee et al., 2021; Shin & Kang, 2018).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 초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강요와 비일관성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청소년 초기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주지만(Jung, 2010),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한다(Shin & Kang, 2018). 청소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초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보다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비밀관성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초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속도를 낮추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빠르게 낮아지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하고, 강요,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대화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과 청소년기 자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양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 양질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부모역할 교육의 의무화도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고, 부모양육 태도의 6가지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기에 추후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녀를 양육 함에 있어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KYCPS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묶어서 측정하였다. 추후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측정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2018~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COVID-19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실태를 다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COVID-19 이후 변화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부모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 관계 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n, E. M., Kang, H. A., Nho, C. R., Woo, S. J., Chun, J. S., & Chung, I. J.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0*(54), 145-172. ☞ 국문: 안은미,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설, 정익중(2016). 주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0**(54), 145-172.
- Bae, E. J., & Nam, S. H. (2023). The effect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 on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3*(1), 18-24. <http://doi.org/10.17547/kjsr.2023.31.1.18>  
☞ 국문: 배은정, 남수현(20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 효과. **스트레스연구, 31**(1), 18-24.
- Cha, H. S., Lee, H. S., & Kim, J. I.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of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4), 41-55. ☞ 국문: 차한솔, 이호수, 김주일(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Chung, I. J.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국문: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Du, W., Jian, M., Hua, F., & Qi, S. (2021).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styles on self-regulated learning in Chinese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0), 2619-2635. <https://doi.org/10.1007/s11482-021-09985-9>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Plenum Press. <https://doi.org/10.1007/978-1-4684-8956-9>
- Heo, J. (2013). *Heo Jun's eas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dvanced edition*. Hannarae Press. ☞ 국문: 허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구조방정식모형: 고급편**. 한나래출판사.
- Hong, Y. J. (2020). Identifying the typology of the self-esteem changes among early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esting antece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31*(3),



- 251-275. <https://doi.org/10.14816/sky.2020.31.3.251> ☞ 국문: 홍예지(2020).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화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1(3), 251-275.
- Hwang, J. W., & Gao, H. Y. (2023).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mutual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rade chang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4(1), 619-634. <https://doi.org/10.22143/HS21.14.1.44> ☞ 국문: 황재원, 고흥월(2023).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또래 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문사회**21, 14(1), 619-634.
- Jannah, K., Hastuti, D., & Rianny, Y. E. (2022). Parenting style and depression among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Psikohumaniora: Jurnal Penelitian Psikologi*, 7(1), 39-50. <https://doi.org/10.21580/pjpp.v7i1.9885>
- Jeon, R. Y., & Kim, H. H. (2016). The effects of inconsistent parenting and intrusive parenting on early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2), 57-67. ☞ 국문: 전란영, 김희화(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Jeung, M. R. (2016).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eer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국문: 정미란(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또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Ju, Y. H., Chung, I. J., & Kim, Y. I. (2019).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self-esteem in single-parent families and its predictors. *Journal of Youth Welfare*, 21(1), 135-164. <http://doi.org/10.19034/KAYW.2019.21.1.06> ☞ 국문: 주영하, 정익중, 김영일(2019). 한부모가족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21(1), 135-164.
- Jung, B. S. (2010).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esteem. *Studies on Korean Youth*, 21(4), 5-30. ☞ 국문: 정병삼(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Keizer, R., Helmerhorst, K. O. W., & van Rijn-van Gelderen, L. (2019). Perceived quality of the mother-adolescent and father-adolescent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0), 1203-1217. <https://doi.org/10.1007/s10964-019-01007-0>
- Kim, H. H., Kim, H. J., & Park, J. K. (2023). Effect of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on

- self-esteem: Mediating effect of grit. *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and Practice*, 5(1), 83-103. <http://dx.doi.org/10.23108/decrc.2023.5.1.83> 국문: 김현하, 김현지, 박재국(2023).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것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5(1), 83-103.
- Kim, M. J., & Lee, S. R. (2018). The effects of parental intrusiveness on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55(0), 5-25. <http://dx.doi.org/10.17854/ffyc.2018.07.55.5> 국문: 김민주, 이사라(2018). 부모의 과잉간섭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5(0) 5-25.
- Kim, M. K.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attachmen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life goal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ego identit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0(3), 53-70. 국문: 김미경(2018).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3), 53-70.
- Kim, S. O. (2022). *Structural model of the mediation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empathic ability and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국문: 김상옥(2022). 부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과 초등학생 자기결정학습동기의 구조적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Kim, S. Y. (2021). The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43-64. <http://dx.doi.org/10.34226/gcl.2021.11.4.43> 국문: 김소영(2021).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43-64.
- Kim, T. M., & Lee, E. J.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http://dx.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국문: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Kim, Y. H., Park, E. J., Shin, J. E., & Jeong, H. S. (2021).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s, self-esteem, and aggress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9), 141-169. <http://dx.doi.org/10.21509/KJYS.2021.09.28.9.141> 국문: 김영희, 박은주, 신지은, 정혜숙(202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 청소년

- 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8(9), 141-169.
- Kim, Y. S., & Cho, H. I.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itude toward rearing,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3), 529-561. <http://dx.doi.org/10.17286/KJEP.2017.31.3.07>  
 ☞ 국문: 김영숙, 조한익(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 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529-561.
- Lee, E. T., & Lea, E. K.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lf-esteem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7(1), 127-146. <http://dx.doi.org/10.34244/JFOYS.2020.17.1.127> ☞ 국문: 이용택, 이은경(2020). 부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삶의 만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1), 127-146.
- Lee, S. C., Lee, S. K., & Choi, Y. J.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ative nurturing attitude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6(5), 93-128. <http://dx.doi.org/10.17854/ffyc.2021.01.65.93> ☞ 국문: 이승출, 이성규, 최영진(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0(65), 93-128.
- Lee, S. Y., & Kwak, D. H.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rearing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6(1), 139-158. <http://dx.doi.org/10.25277/KCPR.2020.16.1.139> ☞ 국문: 이서영, 광대훈(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Grit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139-158.
- Lim, H. J., & Lee, J. E. (2016). A longitudinal change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2), 315-335.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2.315> ☞ 국문: 임효진, 이지은(2016). 중학생의 자존감, 자기통제 및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315-335.
- Martinez, I., Garcia, F., Veiga, F., Garcia, O. F., Rodrigues, Y., & Serra, E. (2020). Parenting styles, internalization of values and self-esteem: A cross-cultural study in Spain, Portugal and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2370-2387. <http://dx.doi.org/10.3390/ijerph17072370>
- Mun, D. S., & Choi, E. S. (2015).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 Studies*, 22(10), 213-236. ㉞ 국문: 문두식, 최은실(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Children · youth(middle school student) fourth-year questionnaire.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view?menuId=MENU00226&pageNum=6&titleId=21&schType=0&schText=&firstCategory=&secondCategory=> ㉞ 국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아동·청소년용(중등) 제4차년도 질문지**.
- Park, H. S. (2023). The growth trajectory of Korean children/youth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self-esteem.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6(1), 63-86. <http://doi.org/10.35283/erft.2023.36.1.63> ㉞ 국문: 박혜숙 (2023).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 심리적 및 사회관계적 변인과의 관계. **미래교육학연구**, 36(1), 63-86.
- Park, H. S., & Kim, S. Y. (2023). Latent profile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their relations to grit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0(10), 415-442. <https://doi.org/10.21509/KJYS.2023.10.30.10.415> ㉞ 국문: 박혜성, 김성연(2023). 초·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과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그릿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30(10), 415-442.
- Park, S. H. (2021). The influence and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 smartphone dependency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23(1), 131-156. <http://doi.org/10.19034/KAYW.2021.23.1.06> ㉞ 국문: 박선희(202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스마트폰의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1), 131-156.
- Pinquart, M., & Gerke, D. (2019).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0), 2017-2035. <https://doi.org/10.1007/s10826-019-01417-5>
- Queiroz, P., Garcia, O. F., Garcia, F., Zacaes, J. J., & Camino, C. (2020). Self and nature: Parent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environmental values in Spanis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732-3745. <https://doi.org/10.3390/ijerph17103732>
- Rhee, S. H., & Lee, E. G. (2017). The effects of parents' affective parenti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2(3), 3-32. ㉞ 국문: 이선희, 이은경(2017).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

구, 2(3), 3-32.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8. <https://doi.org/10.2307/35237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J. H., & Kang, H. A. (2018).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4(0), 1-22. <https://doi.org/10.20993/jSSW.44.1> ㉮ 국문: 신지현, 강현아(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0), 1-22.
- Skinner, E., Johnson, S., & Syn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Yim, H. R., & Kim, S. H. (2020).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neglect·abuse and adolescent self-esteem: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ion in learning.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8(2), 101-112. <https://doi.org/10.55063/KIYFE.2020.18.2.10> ㉮ 국문: 임혜림, 김서현(2020). 부모방임·학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 학습의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8(2), 101-112.
- Yoo, C. M. (2017).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A longitudinal study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8(4), 5-31. <https://doi.org/10.14816/sky.2017.28.4.5> ㉮ 국문: 유창민(2017). 청소년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5-31.
- Yoo, H. J. (2021). *The mediating effects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emotional control difficultie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non-suicidal self-injury*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유혜정(2021).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SNS 중독경향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Yoo, K. H., & Kim, D. M. (2023).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on citizenship: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oderating effect school level and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9(1), 65-92. <https://doi.org/10.51636/JOTD.2023.04.19.1.65> ㉮ 국문: 유계환, 김대명(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학교급과 성별의 조절효과. *사고개발*, 19(1), 65-92.